

노동자들을 ‘식당 야채보다도 못한 대우’ 하는 서울대 당국

— 생협 노동자 파업 지지한다

9월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지지한다.

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협 노동자들은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상주하는 학교를 굴러가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생협 노동자들의 1호봉 기본급은 171만 50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적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보다 62만 가량 낮다. 호봉이 상승해도 인상률이 높지 않아 10년을 일해도 200만 원을 겨우 받는다.

적은 기본급을 벌충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특근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생협 사측이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면서 특근수당마저 줄어들었다.

서울대 당국은 ‘서울대와 생협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를 대며 서울대학교 소속 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

그래서 생협 노동자들은 더는 ‘최저 인생’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며 기본급 3퍼센트 인상과 명절휴가비 지급, 호봉 인상률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정당한 파업에 돌입했다.

“야채보다 못한 삶”

생협 관리자들은 선풍기를 틀면 야채가 마른다면서 푹푹 찌는 날에도 주방 안에 선풍기를 못 틀게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저희가 야채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말한다.

동원관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에어컨도 없는 1평도 안 되는 휴게실을 8명이 써야 해서, 여름에는 점심 배식 후 식당 바닥에 야외용 돗자리를 깔고 눕는다. 심지어 여자 휴게실 안에 달린 샤워실을 남녀가 같이 써야 한다.

농생대 식당에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샤워실이 부족해서 주방에 간이 커튼을 달아 흐르는 땀을 씻는다. 그나마 간이 커튼도 지난 달 한 청소 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실에서 사망한 일이 있고 난 뒤에야 달아 줬다고 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이런 모욕적 환경을 참으면서 겨우 일하고 있다.

낮은 임금에 더해 높은 노동강도 역시 노동자들을 괴롭힌다.

학생회관 식당 한 곳에서만 노동자 약 서른 명이 하루 동안 6000명 식수를 준비한다. 습진이 몸을 뒤덮고 팔목과 팔꿈치를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식당 노동자 대부분이 자기 돈으로 진통제 주사를 맞아가며 일한다.

카페 노동자들에게는 식사 시간 30분이 주어지는데 눈코 뜰새 없이 밥만 잠깐 먹고 와야 한다. 쉬는 시간은 없다시피 한데 최근에는 무인 주문기계 도입을 이유로 인원을 줄여 노동강도는 더 늘어버렸다. 카페 노동자들의 요구 중 하나가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많은 학내 단체, 학생회에서 연이어 지지 성명을 냈다. 파업 집회에 찾아와 지지 메시지와 지지금을 전달하는 학생들도 있다.

당분간 학생들이 식당 이용에 겪을 불편함만 봐도 그동안 누려왔던 편리함이 모두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에 의존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생협 사측은 파업 이후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에 급급하다. 파업 첫 날엔 조리사도 없이 음식을 조리해 배식하는가 하면, 6개월도 되지 않은 수습 조리사와 2년 미만의 계약직들만으로 식당 한 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먹는 식단의 위생은 고려조차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식권을 판매하거나 식당 홀에서 서빙을 보던 직원들을 카페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서울대 당국은 생협이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부총장과 학생처장이 생협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맡고 있고, 학교 정책에 의해 서울대는 생협이 남긴 이윤을 많게는 연 22억원씩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서울대 당국은 생협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측과 학교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안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생협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승리할 수 있게 학생들이 더 큰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9.09.28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